

# 포식성 이리응애의 다양성: 과원 응애류 생물적 방제 가능성

정철의, 이준호<sup>1</sup>, 이순원<sup>2</sup>

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, jung@andong.ac.kr

<sup>1</sup>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, <sup>2</sup>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구사과시협장

과수 생태계는 과수, 잡초, 해충, 천적 등 다양한 생물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. 점박이응애를 위시한 잎응애류는 중요한 과수 해충이며, 잎응애류의 생물적 방제는 과수해충종합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. 지난 10여년 토착 포식성 이리응애를 이용한 과수 응애류 생물적 방제는 긴털이리응애 한 종에 집중되었다. 그러나 최근 3년간 경북, 충남, 경기 수원지방 사과와 배 과원에서 과수 잎과 지면 잡초를 조사한 결과, 포식성 이리응애류는 2속 13종이 조사되었다.

이리응애상을 사과와 배 과원별로 비교하고, 특히 사과원의 경우, 장기간 관리하지 않는 과원, IPM 관리 과원, 관행 관리 과원으로 나누어 이리응애상을 비교하였다. 각 종의 생태적 특성과, 주요 서식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. 특히 과원에서 긴털이리응애, 긴꼬리이리응애, 알락이리응애, 순이리응애 등에 관한 국내외적 이용과 약제감수성,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에 대한 선호성 및 포식 능력 등 생물학적/응용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천적군 다양성과 보호를 통한 응애류 생물적 방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. 그리고 이리응애과 (Phytoseiidae)의 국내 분류 체계와 세계적 분류체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이리응애과 분류체계를 제안한다.